2022 공군-한국국제정치학회 하계학술대회

공군은 6월 29일 서울 서대문구 연세대 백양누리에서 각계 전문가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국가안보와 우주지정학'을 주제로 학술세미나를 개최했다. 한국국제정치학회가 공동 주관한 세미나는 국가·국방 우주력 강화 발전방향과 민·관·군 협력 방안을 찾기 위해 마련됐다. 행사는 김상배 한국국제정치학회장 개회사, 정상화 공군참모총장 환영사, 서승환 연세대 총장과 안규백 국회의원 축사, 이상률 한국항공우주연구원장 기조연설, 주제 발표·토론 순으로 진행됐다. 총 3개 세션으로 구성된 주제 발표에서는 숙명여대 김광진 교수가 '우주강국의 국방 우주력 현황과 미래', 국가안보전략연구원 박병광 박사가 '주변국의 잠재적 위협과 한국의 우주전략', 조선일보 유용원 기자가 '북한의 군사위협과 한국의 국방우주전략'을 소개했다. 두 번째 세션에서는 연세대 정헌주 교수가 '글로벌 우주 거버넌스와 국제협력', 국가우주정책연구센터 안형준 박사가 '우주산업의 현황과 미래', 숭실대 김태형 교수가 '국내 우주 거버넌스 구축을 위한 민·관·군 협력'을 주제로 발표했다. 마지막 세션에서는 '한국의 우주력 발전방향과 군의 역할'을 주제로 전문가 토론이 열렸다.//

공군우주센터, 한국항공우주학회 춘계학술대회 우주안보 세션 개최

우주공군 도약의 공감대를 형성하고, 최신 우주기술 동향을 파악하는 뜻깊은 행사가 4월 22일 마련됐다.

공군우주센터는 이날 한국항공우주학회 춘계학술대회에서 우주안보 세션을 개최했다. 이 자리에서 공군은 우주 영역에서의 비전을 소개하고, 국방 우주력 강화를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한국항공우주학회 학술대회는 지난 1980년 4월 처음 문을 열었다. 대한민국의 항공우주력 발전과 전력 운용 방향을 토의하는 국내 최대 항공우주 분야 학술행사로 자리매김했다. 공군은 2019년 우주안보 세션을 처음 열었고, 2020년부터는 한국항공우주학회와 체결한 업무협약에 따라 매년 두 차례씩 주관하고 있다. 올해에는 4개 부문으로 세션이 구성됐다. 박하식(중장) 공군사관학교장 축사, 특별강연, 학술발표, 부문별 위원회의 등이 진행됐다. 특히 '효율적인 국방 우주력 적기 구축을 위한 공군 선도 발전 필요성' '한국형 위성항법시스템의 안정적 운영 및 사업 추진을 위한 공군 협업 방안' 등 19건의 주제가 선정돼 항공우주 분야 전문가들의 열띤 발표·토론이 이어졌다.//

공군-(사)한국방위산업학회, 제1회 우주·미사일 방어전략 포럼

공군은 5월4일 "공군호텔에서 (사)한국방위산업학회와 함께 '제1회 우주·미사일 방어전략 포럼'을 개최하고, 공군 4대 핵심능력 강화(Air 4s of Air Force)를 중심으로 하는 미래 공군의 청사진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핵·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의 전략적 구축방법을 논의하기 위해 추진된 이 날 행사에는 공군·산업계·학계 전문가 160여 명이 참가했다.

행사는 채우석 한국방위산업학회장의 환영사, 박인호 공군참모총장의 기념사, 공군 기조발표, 국방과학연구소와 기업체의 주제발표 등의 순서로 진행됐다.

공군은 최춘송(소장) 기획관리참모부장의 기조발표에서 정예 우주공군으로 도약하려는 강한 의지와 함께 '공군 4대 핵심능력 강화'를 바탕으로 한 단계적 항공우주력 건설방안을 소개했다. 공군의 4대 핵심능력은 '북 핵·미사일 대응체계 강화(Safe Guard)' '유·무인 전투비행체계 확보(Strike Adversary)' '우주전력의 도약적 발전(Space Odyssey)' '지능형 전투지휘통제체계 구축(Smart C2)'이다. 공군은 이를 'Air 4s of Air Force(에어 포스 오브 에어포스)'로 명명했다.//

15비 2348부대, 40년 무사고 비행

공군15특수임무비행단(15비) 소속 2348부대는 6월 2일 지난 1982년 6월 2일부터 이날까지 40년간 단 한 건의 사고 없이 비행 임무를 수행하는 쾌거를 달성했다.

2348부대는 공수작전을 수행하는 공군의 핵심비행부대로 다양한 임무를 수행하며 국격을 높이는 역할을 해왔다.

특히 지난 40년간 실전적 훈련과 완벽한 팀워크를 바탕으로 한 치의 실수 없이 임무를 완수해왔다고 부대는 설명했다.//

정보통신 발전 콘퍼런스

공군은 6월28일 공군호텔에서 정상화 참모총장 주관으로 '공군 정보통신 발전 콘퍼런스'를 개최했다. 'D·N·A(Data·Network·AI) 기반 디지털 대전환으로 지능형 스마트 공군력 건설'을 주제로 열린 행사에는 민·관·군 정보통신기술(ICT) 전문가 600여 명이 참석했다.

행사는 정 총장의 개회사를 시작으로 이상민·신원식·김병주 국회의원과 박종승 국방과학연구소장 축사, 특별강연, 주제 발표 순으로 진행됐다.

특별강연에서 한국과학기술원(KAIST·카이스트) 이광형 총장은 '디지털 대전환 시대의 대한민국 안보전략'을 제안하며 "과학기술 혁신을 통한 핵심기술을 보유하는 것이 대한민국 안보전략의 중심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주제 발표에서는 한국지능정보사회진흥원 박상현 본부장, GQT코리아 박승환 대표, 한국인터넷진흥원 박휘운 단장, 국방과학연구소 정길수 팀장, 한국전자통신원 박상준 박사가 각각 ICT 융합, 양자 암호통신, 사이버보안, 한국형 전술위성군 등을 주제로 군 내 적용·발전 방안을 발표했다.//

호국보훈 정기음악회 개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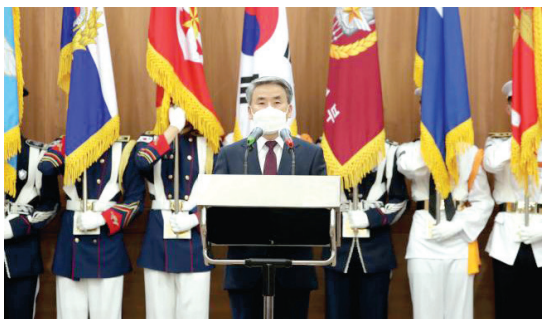
공군은 6월 21일 서울 용산구 블루스퀘어에서 일반 국민, 군 가족, 장병, 주한미군 등 1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호국보훈의 달 국민과 함께하는 공군 정기음악회'를 개최했다. 공연은 지구를 넘어 우주로 향하는 인류의 소망을 주제로 만들어진 관악곡 'Space & Beyond'로 시작했다. 이어 6·25전쟁 참전 22개국의 국기를 이용한 공군의장대 기수단의 퍼포먼스와 함께 연주곡 'Hero's to the Heroes'가 펼쳐져 호국 영웅들의 숭고한 희생을 기렸다. 또 전통무예를 현대적으로 재해석한 국악 모듬북 공연 '승전고'와 공군 조종사들의 열정과 사랑을 이야기한 영화 '탑건'의 삽입곡들을 선보이며 관객들에게 감동을 선사했다. 특히 공연에서는 백호열(소령) 공군군악의장대장이 지휘하는 우리 공군군악대와 윌리엄 맥컬리 준위가 이끄는 미8군 군악대의 협연도 마련돼 한미 양국의 돈독한 우정과 신뢰가 어우러진 무대가 펼쳐졌다. 아울러 주한미군에서 근무했던 제이미 버클리 예비역 하사가 작사·작곡한 'We go together' 무대에서는 한미동맹의 정신을 음악으로 표현해 관객들의 박수갈채를 받았다.//

한미 정상회담·공동성명

한미는 5월21일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라는 공동의 목표를 재확인하면서 강력한 대북 억지력이 중요하다는 데 공감대를 형성하고, 이를 위한 연합훈련 및 미군 전략자산의 한반도 전개를 위한 협의를 개시하기로 했다. 또 한미동맹을 군사적 동맹을 넘어 글로벌 포괄적 전략동맹으로 발전시켜 나가자는 데 의견을 같이했다.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이날 용산 청사에서 첫 정상회담을 열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한미 정상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공동 기자회견 후 발표된 성명에는 △가장 빠른 시일 내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재가동 △한반도와 그 주변에서의 연합연습 및 훈련 범위와 규모 확대를 위한 협의 개시 △필요시 미군 전략자산 전개와 억제력 강화를 위한 추가적 조치 식별 등이 담겼다.//

이종섭 48대 국방부 장관 취임



이종섭 제48대 국방부 장관은 5월11일 "한국형 3축 체계 능력을 획기적으로 강화해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장관은 이날 국방부 청사에서 열린 취임식에서 '튼튼한 국방, 과학기술 강군' 건설을 위한 다섯 가지 국방 운영 중점 사항을 역설하며 이같이 말했다.

이 장관은 취임사에서 "미국과 중국의 전략적 경쟁이 지속하는 가운데 북한은 핵과 미사일 능력을 고도화하면서 한반도는 물론 역내 안보 질서를 심각하게 위협하고 있다"며 안보 상황을 평가했다. 이어 국방운영 중점 사항으로 '전방위 안보위협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튼튼한 국방태세 확립'을 꼽았다.

이 장관은 "북한이 전술적 도발을 자행한다면 자위권 차원에서 단호하게 대응토록 할 것"이라며 "이를 위해서는 강한 훈련으로 군의 사기를 드높이고, 언제든지 싸워 이길 수 있는 준비가 돼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공군 전력 발전 방향 국회 세미나

우리 공군의 항공우주력 건설 계획을 확인할 수 있는 '공군 전력 발전 방향 세미나'가 5월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개최됐다. 세미나는 국회 국방위원회 김병주·신원식 의원이 공동주최하고, 한국국방안보포럼(KODEF)이 주관했다.

세미나에서는 △북 핵·미사일 대응체계 강화, 유무인 전투비행체계 확보, 우주전력의 도약적 발전, 지능형 전투지휘통제체계 구축 등 공군의 4대 핵심능력 강화 △KF-21 능동위상배열(AESA) 레이다 개발 현황 및 향후 계획 △현재·미래 작전 환경에서 5세대 전투기의 능력 △T-50·FA-50 성능개량 △한국형 전투기 생존성 극대화 성능개량 방안 등 5개 주제 순으로 발표가 이뤄졌다.

공군의 4대 핵심능력 강화와 관련해 최춘송(소장) 공군본부 기획관리참모부장은 탄도탄 조기경보레이다 추가 전력화 및 초소형 위성체계 확보, 조기 경보위성 확보를 통한 감시능력 강화, M-SAM Ⅲ와 L-SAM Ⅱ 개발 등 탄도미사일 요격능력 보강을 제시했다.

또 F-X 2차 사업의 신속 도입과 FA-50 전투기 추가, KF-21 전투기 초도 양산 물량 추가로 확보된 60대의 전투기로 노후 전투기 도태 시기를 계획 대비 3~5년 앞당길 수 있다는 분석이 눈길을 끌었다.

이와 함께 한화시스템이 KF-21 AESA 레이다 개발 현황을, 록히드마틴은 F-35 전투기 공대지 극초음속 미사일 탑재 계획을 공개했다.

한국항공우주산업은 TA-50·FA-50에 중거리 공대공 미사일·AESA 레이다 등을 탑재하는 성능개량과 주기적 성능개량 법제화 필요성을 제시했다.//

한미 정상, 항공우주작전본부 방문

윤석열 대통령과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은 5월 22일 공군작전사령부 한국항공우주작전본부(KAOC)를 방문 한미 장병들을 격려했다. 한국을 방문한 역대 미국 대통령 가운데 KAOC를 방문한 것은 바이든 대통령이 처음이다.

윤 대통령도 2009년 이명박 대통령 방문 이후 13년 만에 국군통수권자로서 KAOC를 찾았다. 두 정상은 이 자리에서 굳건한 한미동맹과 빈틈없는 대비태세 확립을 강조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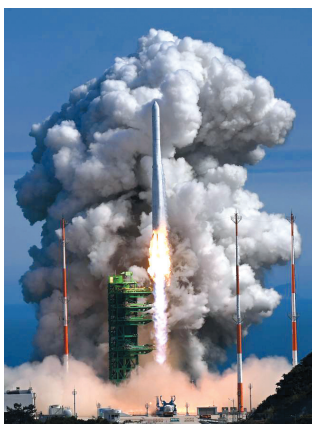
윤 대통령은 "KAOC는 이른바 '3축 체계'를 운용하는 중심이고, 그 통제의 중심"이라며 "날로 고도화하는 북 핵·미사일 위협에 한미가 공동 대응하는 핵심 장소이자 한미동맹을 상징하는 곳"이라고 말했다.

바이든 대통령도 "(한미동맹이) 위협을 억제하고 안정을 유지하는 것은 오늘날 한반도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도 매우 중요하다"며 윤 대통령의 말에 힘을 실었다.//

누리호 발사 성공

한국형 발사체 누리호가 6월21일 성공적으로 발사돼 인공위성이 계획된 궤도에 안착했다. 이로써 한국은 세계에서 7번째로 자체 기술로 발사체를 쏘아 올린 우주강국 반열에 올랐다.

윤석열 대통령은 이날 "누리호 발사 성공은 지난 30년간의 지난한 도전의 산물"이라며 "이제 대한민국 국민과 청년들의 꿈과 희망이 우주로 뻗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누리호는 이날 오후 4시 정각에 발사돼 이륙 이후 1단 엔진 점화·분리, 페어링 분리, 2단 엔진 분리, 위성모사체 분리, 3단 엔진 분리 등 모든 비행절차를 마무리했다. 특히 지난 1차 발사 당시 고배를 마셨던 3단 엔진 분리 과정을 순조롭게 성공했다. 또 성능검증위성과 남극세종기지 간 교신도 원활하게 이뤄졌다.



한편 이번 누리호 발사 성공은 우리나라가 독자적인 우주운송 능력을 확보하고, 자주적인 국가 우주개발 역량을 온전히 갖추게 됐다는 점에서 큰 의의를 가진다.//

67회 현충일 추념식

국가와 국민을 위해 희생·헌신한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명복을 빌고 그 위훈을 기리는 '제67회 현충일 추념식'이 6월 6일 국립서울현충원에서 개최됐다.

올해 추념식은 코로나19 방역조치 완화로 국가유공자와 유족, 정부주요인사, 각계 대표, 시민, 학생 등 약 28,000여 명을 초청, 그 가운데 인터넷 참가신청자를 포함한 약 5,0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됐다.

새정부 출범 후 처음 열린 이번 현충일 추념식은 '대한민국을 지켜낸 당신의 희생을 기억합니다'라는 주제로 오전 10시 정각, 모든 국민이 참여하는 '전국동시 추모 묵념'을 시작으로, 국민의례, 편지낭독, 국가유공자 증서수여, 추념사, 추념공연, 현충의 노래 제창 순으로 진행됐다.

윤석열 대통령은 추념사에서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을 억제하면서 보다 근본적이고 실질적인 안보 능력을 갖추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리고 공정하고 합리적인 보훈체계 구축도 역설했다. "지금 우리가 누리는 자유와 평화는 조국을 위해 희생하신 순국선열과 호국영령의 용기로 지킬 수 있었다"며 "자유와 민주주의, 인권이 더욱 살아 숨 쉬는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을 만드는 것이 그들의 희생을 빛나게 하는 길이라 믿는다"고 전했다.//

6·25전쟁 72주년 기념식

국내외 6·25 참전유공자의 희생과 헌신을 기리고 전쟁의 교훈을 되새기기 위한 6·25전쟁 제72주년 행사가 6월 25일 서울 중구 장충체육관에서 거행됐다.

한덕수 국무총리가 참석한 가운데 국가보훈처가 주최한 이번 행사의 주제는 '지켜낸 자유, 지켜갈 평화'다. 수많은 호국영웅의 고귀한 희생으로 지켜낸 자유 대한민국을, 자유와 번영을 꽃피우는 지속 가능한 평화로 지켜가자는 메시지가 담겼다.

이번 행사에는 국내외 참전용사, 정부 주요 인사, 군 주요 직위자, 시민, 학생 등 약 1500명이 참석해 6·25전쟁의 의미를 가슴 깊이 새겼다.

행사는 여는 공연, 22개 유엔 참전국 국기 입장, 국민의례, 기념공연, 정부포상, 기념사, 기념공연, 6·25의 노래 제창 등의 순으로 50분간 진행됐다.//

서울현충원 제2충혼당 개관식

국립서울현충원은 4월 29일 '남겨짐이 아닌, 이어짐으로'라는 주제로 제2충혼당 개관식을 거행했다. 서욱 국방부 장관 주관으로 열린 행사에는 보훈단체장과 유가족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충혼당은 국립서울현충원의 실내 봉안시설이다. 2006년 3월부터 운영된 제1충혼당은 총 2만468위(位)의 영현을 모심으로써 2020년 7월 만장됐다.

제2충혼당은 3만2952위의 영현을 모실 수 있다. 국가유공자에 대한 마지막 예우를 지속하기 위해 2018년 착공에 돌입했으며, 지난 4월 13일 완공됐다. 지상 4층과 지하 1층 규모의 제2충혼당은 국가유공자 영현을 모시는 봉안실, 추모 공간인 실내·외 25개 제례실, 메모리얼홀, 유가족 편의시설 등을 갖췄다.

충혼당 안장 대상자는 순국선열·애국지사, 현역 군인, 20년 이상 복무 후 전역한 군인, 무공훈장 수상자, 임무 수행 중 순직한 향토예비군 대원 또는 경찰관 등이다. 안장된 사람의 배우자는 본인이나 유족 희망에 따라 합장이 가능하다.//

특수외상 전문 치료 '국군외상센터' 개소

군 장병은 물론 향후 민간 외상환자의 소중한 생명을 책임질 국군외상센터가 4월20일 문을 열고 공식 업무에 돌입했다. 국방부는 이날 서욱 국방부 장관 주관으로 국군외상센터 개소식을 개최했다. 이날 개소한 국군외상센터는 총상·폭발창 등 군 특수외상과 군에서 발생하는 외상환자 전문 진료뿐만 아니라 향후 민간 외상환자 치료까지 지원하기 위한 외상진료 전문기관이다. 센터는 총면적 1만1169㎡(3300여 평) 규모로 응급환자가 이동 없이 검사와 소생술을 한곳에서 받을 수 있는 외상소생실, 전용 수술실(2개), 1인 중환자실(20병상) 등 우수한 시설·장비를 갖췄다. 이로 인해 군 응급 외상환자 발생 때 의무사 의료종합상황센터와 연계한 응급처치부터 군의무후송전용헬기인 메디온을 이용한 후송 및 국군외상센터 치료까지 이어지는 '원스톱 응급환자 지원'이 가능해졌다.//

향군 신상태 신임 회장 취임

대한민국재향군인회(향군)는 4월 15일 서울 서초구 향군 본회에서 37대 신상태 회장의 취임식을 개최했다. 신 회장은 취임사에서 "우리가 새로 쓸 70년의 역사는 영광과 번영의 판타지가 돼야 한다"며 "이를 위해 하나로 뭉쳐 힘을 기르고 지혜를 발휘해 향군의 영광 재현, 건강하고 튼튼한 재정 회복, 하나로 뭉쳐진 향군을 구현하자"고 강조했다. 신 회장은 육군3사관학교 6기로 임관했으며 육군 대위로 전역했다. 이후 건국대에서 경영학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27·28대 서울시 향군 회장, 향군 부회장을 역임했다. 현재는 한국PLA·애프디인더스트리·상원무역·천우기업·송현산업 회장으로 재직 중이다.//

보훈처 '전주보훈요양원' 개원

보훈처는 4월 27일 전북지역 거주 국가유공자와 보훈 가족에게 맞춤형 전문 요양서비스를 제공할 '전주보훈요양원'을 개원했다. 보훈요양원은 보훈 가족의 고령화와 치매·중풍 등 노인성 질환 증가에 따라 가정에서 돌봄이 어려운 보훈 가족에게 체계화된 요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시설이다.

보훈처는 현재 수원특례시, 광주·대구·대전광역시, 김해시, 남양주시, 원주시 등 전국 7개 지역에서 보훈요양원을 운영하고 있다. 전주보훈요양원은 복권기금 356억 원을 투입해 대지면적 1만4033㎡, 연 면적 9758㎡에 지하 1층, 지상 3층, 200병상 규모로 건립됐다. 장기 요양대상자 200명과 주간보호 대상자 25명을 수용할 수 있는 규모다. 앞으로 요양보호사, 간호사 등 131명의 인력이 상주하며 물리치료실과 각종 재활치료실, 치매 전담실 등에서 다양한 요양서비스를 제공한다. 입소대상은 노인장기요양보험법에 따라 등급판정을 받은 국가유공자·유족이다. 입소 희망자는 전주보훈요양원(063-220-0777)에서 자세한 내용을 상담하면 된다. 이용료는 노인장기요양보험에서 80%를 지원하고 입소자 본인이 20%를 부담하게 된다.//

'부산보훈병원 재활센터' 오픈

부산·울산·경남지역에 거주하는 13만 명의 국가유공자와 유가족들에게 전문 재활서비스를 제공할 부산보훈병원 재활센터가 공식 개소했다. 국가보훈처(보훈처)는 5월 27일 각종 노인성·만성질환으로 힘들어하는 국가유공자와 유가족의 재활치료를 전담할 부산보훈병원 재활센터 준공식을 개최했다.

준공식에는 박민식 보훈처장과 감신 한국보훈복지의료공단 이사장, 보훈단체장, 보훈 가족 등 100여 명이 참석했다. 부산보훈병원 재활센터는 복권기금 234억 원을 투입해 지하 1층·지상 6층, 전체 면적 7446㎡, 80병상 규모로 건립됐다. 재활운동 치료실·전문재활 치료실·근골격계 치료실 등을 갖췄으며, 50여 명의 전문의료진과 직원들이 운영한다. 보훈처는 보행보조로봇과 상지(上肢) 재활로봇, 무중력 트레드밀(Treadmill) 등 각종 첨단기술을 도입해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재활을 지원할 계획이다. 더불어 거동이 불편한 국가유공자를 직접 찾아가는 방문 재활치료도 병행할 예정이다.//

손가락 상실·시력장애 상이등급 기준 개선·신설

보훈처는 "손가락 상실과 시력장애 등에 대한 상이등급 7급 기준을 개선·신설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시행에 들어갔다"고 5월 11일 밝혔다. 이에 따라 국가유공자 등급 심사 시 둘째 손가락을 한 마디 이상 상실한 사람도 7급 판정을 받게 됐다. 기존에는 두 마디 이상을 잃어야 7급 판정을 받을 수 있었다. 또 한 발에서 4개 이상의 발가락을 두 마디 이상 상실했을 때 7급 판정을 받았던 것을 '3개 이상의 발가락 두 마디 이상 상실'로 기준을 완화했으며, 한 발과 양쪽 발가락의 상실 정도를 보다 세분화한 기준을 추가했다. 더불어 한 눈의 시력이 기존 '0.06' 이하에서 '0.1 이하'일 경우 상이등급 7급에 포함되도록 완화했고 '한쪽 난소 또는 한쪽 난관을 상실'한 경우에도 상이등급 7급을 받을 수 있도록 기준을 신설했다.

개선 또는 신설된 상이등급 기준은 시력장애와 발가락 상실은 5월 9일, 손가락 상실과 난관·난소 상실은 11일 이후 등급 심사를 받는 사람에게 적용된다. 상이등급 7급을 받게 되면 월 36만5000~52만1000원의 상이보상금과 교육지원, 취업지원 등 보훈 혜택을 받을 수 있다.//

김 신 장군 제6주기 추모식

(사)김신장군기념사업회가 주관한 제6대 공군참모총장을 지낸 고(故) 김신 장군 서거 6주기 추모행사가 5월19일 서울 용산구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열렸다.

행사에는 유가족, 박인호 공군참모총장, 역대 공군참모총장, 기념사업회 임원 등 약 200여명이 참석했다.

김신 장군은 백범 김구 선생의 차남으로 1922년 중국 상하이에서 태어났다. 일제강점기 항일 항공독립운동을 펼쳤고, 6·25전쟁에서는 조종사로 참전해 혁혁한 공을 세웠다. 특히 1952년 1월 승호리철교 차단작전에서 '저공침투비행'이라는 새로운 공격 전술을 창안·적용해 우리 공군의 전투 기량과 위상을 높였다. 전역 후에도 교통부 장관, 국회의원 등을 역임하며 국가 발전에 헌신했다.

김두만 김신장군기념사업회장은 추모사에서 "고 김신 장군은 조국이 위기에 처했을 때 누구보다 앞장서 하늘을 날며 대한민국 공군의 용기와 우수성을 만방에 떨친 분"이라며 "고인을 본받아 한반도 평화를 지키고, 정의로운 나라를 만들어 가겠다"고 말했다.//

서동열 제18대 공군참모총장 별세

제18대 공군참모총장을 지낸 서동열 예비역 대장이 4월 29일 별세했다. 향년88세.

고인은 1934년 경남 함양군에서 태어나 1956년 공군사관학교 4기로 임관했다. 공군참모차장, 공군작전사령관 등 주요 보직을 거쳤고, 1987년 6월 공군참모총장에 올랐다.

참모총장 재직 시에는 C-130수송기를 도입하고,이를 운용하는 251공수비행대대를 창설해 대한민국 공군의 위상을 높인 '미라클 작전'의 토대를 마련했다. 또1988년 서울올림픽 당시 '공군 올림픽 지원단'을 창설하고 성화봉송 공중 엄호작전과 개막식 축하비행 등으로 올림픽의 성공적 개최와 국격 향상에 크게 기여했다.

이 같은 공로로 보국훈장 통일장,수교훈장 광화대장 등 다수의 훈장을 받았다.

전역후에는 제20대 공군전우회장 및 초대 공군발전협회장을 지낸바 있다.

영결식은 5월 2일 열렸으며, 국립서울현충원에 봉안됐다.//

공군학사장교회 2022년도 정기총회 개최

(사)공군학사장교회(회장 서영득)는 창립 23주년 기념행사 및 2022년도 정기총회를 4월 15일 공군호텔에서 박인호 공군참모총장 및 회원 등 약 12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개최 했다.

이날 행사는 1부 행사로 창립 23주년 기념행사와 만찬을 한후 2부 행사로 2022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하여 2021년도 재무제표와 2022년도 사업계획 및 예산안 그리고 회칙개정안을 의결했다.//

공군전공상유공자회 정기총회

공군전공상유공자회(회장 박찬태)는 6월15일 공군호텔에서 2022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했다.

이날행사는 공본 전직지원정책과장이 참석하여 공군참모총장 격려서신과 위문품을 전달하고, 하윤근 부회장 부인(이태순)에게 박회장의 감사장을 전달했다. 이어서 2021년도 경과보고 및 결산안, 2022년도 사업계획안과 예산안을 의결하고 임원선출에서는 현 회장이 연임되고 감사에는 김붕한 상임이사가 선출되었다. 불우한 유공자회 회원들을 계속 지원해온 공군사랑회 서용길 회장 등 임원 3명이 참석하여 자리를 빛내 주었다.//

황성회(준사관) 골프대회

본회 산하단체인 황성회는 자체 골프대회(황성회장배)를 5월 23일 성남기지 등 3개 기지(분산 개최)에서 골프동호회원 48명이 참가한 가운데 개최하여 회원간의 친목을 도모했다.

대회 결과 최우수상에는 서순창 회원이, 장타상에는 신학철 회원이 각각 차지했다.//

공군 ROTC장교회장단, 공군 교육사령부 방문

공군 ROTC장교회(회장 김형구) 회장단 3명은 4월 14일 공군교육사령관 초청으로 공군 교육사령부를 방문하여 부대현황 청취 및 환담을 나누고 오찬을 함께했다.//

안호원 회원, '사회봉사부문 대상' 수상

본회 안호원 회원이 6월 23일 백범김구기념관에서 안중근의사평화컵추진위원회, 대한민국기자협회 및 선데이타임즈가 공동 주관한 '2022년 한국을 빛낸 자랑스러운 한국인 대상 시상식'에서 '사회봉사부문 대상'을 수상했다.

안 회원은 지난 50년 동안 개척교회 목사들과 독거노인들을 대상으로 나눔사회 봉사활동과 영세민 대상 급식 및 무료진료 봉사활동 등을 펼쳐왔다.

안 회원은 이밖에도 영등포구 우범지역을 순찰하는 등 법무부 비행청소년 상담사로도 활동해왔고, 노인 위안 잔치 등을 갖기도 했다. 특히 2014년부터는 6.25전쟁 전우, 월남참전 고엽제 전우 등을 초청하여 위로잔치를 하며 봉사활동을 꾸준히 전개해 왔으며 전방부대 및 유엔군 충혼탑을 찾아 호국영령들을 위한 추도식 행사도 하고 있다.

안 회원은 "남들도 다하는 작은 일이 세상에 알려져 상을 타게 되어 보람도 느끼지만, 한편으로는 부끄럽다. 앞으로도 오늘이 있기까지 나를 키워준 사회에 환원 차원에서 나를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내 힘이 다할 때까지 봉사를 할 것이다."라며 수상소감을 밝혔다.//

부사관회(원우회) 회장단 관제부대 위문

본회 산하단체인 부사관회(회장 차주성) 회장단 일행은 5월 19일 제4회 등반대회를 경기도 파평산에서 실시한 후 인근 관제부대를 방문하여 지휘관과 환담을 나누고 위문금 100만원을 전달했다.//